

중문관광단지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 진 희*

목 차

- I. 서 론
- II. 중문관광단지의 현황
- III. 관광객 설문조사분석
- IV. 중문관광단지 야간관광활성화 전략
- V. 결 론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관광은 지역의 자연·문화자원, 지역산업에서부터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지역특성을 유효하게 전개시킴으로써, 주의깊게 계획되지만 한다면 지역진흥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된다. 특히 공장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사람을 끌어들이려 해야하는 탈공업화 사회, 이동성이 크게 부각되는 개방화·국제화 사회라는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진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중문관광단지내 컨벤션 센터 건립 등은 중문관광단지의 효능적인 환경을 크게 변화 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처럼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문관광단지는 보문관광단지과 더불어 국제수준의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거점관광지로 조성하는 개발방향을 갖고 있다. 이제 장소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관광지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의 변동과 변화는 한 장소의 대응능력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 한 장소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응하고 성장기회를 포착하여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소는 경쟁장소보다 장소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관광객,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 생존이 가능하다. 장소의 특성에 알맞는 믹스를 설계하고, 잠재적 구매자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조교수

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 구매자가 장소의 장점을 잘 알 수 있도록 장소의 가치와 이미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장소의 생존, 성장, 발전에 있어 전략적 장소 마케팅의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진희 외 1, 2000)

2. 연구의 목적

중문관광단지의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향후 중문을 야간관광의 메카로 탈바꿈할 전략적 마케팅 수립을 도모함에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문관광단지의 잠재력, 제약성을 분석하여 야간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둘째, 중문관광단지의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야간 관광시설을 도입한다. 셋째, 야간관광 수요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연구의 대상지역

장소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전략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 경험을 미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중문관광단지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다. 중문은 수직 50~60m의 낭떠러지와 고운 모래, 투명한 코발트빛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중문 해수욕장과 상중하 3단으로 이뤄진 천제연 폭포,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로 관광객을 맞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5천명이 넘는 관광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 골프장, 해수욕장, 해양 수족관, 관광식물원, 쇼핑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다.

II. 중문관광단지의 현황분석

1. 중문관광단지의 개발현황

우리나라 관광단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관광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및 국민복지기여가 공간확충이라는 관광진흥책을 내세운 1970년대초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시작으로 1970년대말 제주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착수되었다.

1) 관광개발 추진현황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자원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일대에 국내관광객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1978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중문단지는 해안에 인접해 있는 넓은 건축부지와 해수욕장 등으로 뛰어난 입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경관등의 자원성도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경관 영향평가지역이어서 고도제한 등의 개발제한 여건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안형관광단지로 분류될 수 있는 중문관광단지는 정부가 기반시설건설에 투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있다.

개발면적은 1985. 3. 7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3.74km로 확정·공고되었으며 1990. 11. 27에는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역경계선과 일치되도록 개발면적이 3.24km로 변경되었다. 동 개발계획에 따르면 1995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마금골계곡과 천제연계곡 사이의 2.09km, 2001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천제연계곡 동부 1.15km를 단계적으로 개발완료할 예정인데 관광단지내에 들어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시설, 관광식물원, 골프장, 해양수족관, 전망휴식소 기타 편의시설 등이다.

한편 2단계사업인 동부지역은 한국관광공사가 1991년 6월에 제주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동부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중문관광단지 개발규모는 1단계지역(중부지역) 2.09km(63만평)과 2단계지역(동부지역)의 면적 1.13km(34만평), 합계 3.22km(97만평)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1994년 6월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확정·공고하였고, 1996년 8월에는 개발면적 108만평에 대하여 2단계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및 시행허가 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2단계 지역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관광개발 투자실적('78~2000.9)

〈표 2-1〉 정부(1단계)투자실적 : 4,465백 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내용	투자금액	비고
토지매입	94만평	43.953	1단계 : 60만평
단지조성	60만평	20.789	2단계 : 34만평
하수처리시설	5,000톤/일	4.227	
조경	72,000주	2.259	
골프장	18홀	8.634	
공공·관광시설	관광센터, 선임교 등	9.920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중문관광단지개발현황, 2000. 11

〈표 2-2〉 관광공사 투자실적: 89,182백 만원

(단위 : 백만원)

시행부처	내용	투자금액	비고
건설부	도로, 교량공사	3,670	도로 2.1km, 교량 160m
제주도	상수시설	220	3,484 MTD, 2.7km
한국통신	통신시설	139	3.1km
한전	송변전시설	436	10,000KVA

〈표 2-3〉 민자 투자실적: 364,05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규모	투자금액	개관일
숙박 시설	소계	7개소(1,569실)	320,198	
	신라호텔	429실	89,219	'90, '98.(1.2차완공)
	롯데호텔	500실	159,000	2000.4
	하얏트호텔	224실	31,400	'85.6(1차완공)
	그린빌라호텔	90실	16,000	'94. 7
	하나호텔	80실	7,500	'93. 7
	관광어촌	30실	5,500	'91. 7
	한국콘도	216실	11,579	'89. 7
위락 시설	소계	3개소	34,900	
	여미지식물원	4,031평	11,000	'89. 10
	해양샌타	14,840평	8,900	'86.9(1차완공)
	곰박물관 (테디베어뮤지엄)	4,100평 (연건평1,300평)	15,000	2001. 4
상업 시설	소계	4개소	8,952	
	전망휴게소	2개소	1,300	'89, '93
	쇼핑상가	1동 607평	1,964	'89. 3(1차완공)
	한국관	3,606평	5,688	'89. 12
계	14개소	364,050		

2. 관광자원 현황

1) 입지여건

중문관광단지(제주시에서 서남부 40여km 지점,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약 14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서부산업도로를 따라 차량편으로 제주시에서 50여분 거리에 있으며, 서귀포 신시가지에서는 10여분, 서귀포시내에서는 20여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대상지는 서귀포

시 중문지역 바닷가에 자리잡은 중문관광단지 일대이다. (서귀포시·제주발전연구원, 중문해수욕장 환경개선기본계획, 2000년 7월, pp.14-33.)

중문관광단지에는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수직 30~40m의 해안절벽, 고운 모래의 중문해수욕장, 천제연폭포와 계곡, 온갖 식물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여미지식물원, 바닷가에 자리잡은 해안 골프코스, 최상급호텔과 관광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외국의 정상급 귀빈들이 자주 방문한 바 있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관광단지에서 서쪽으로는 안덕계곡, 화순해수욕장, 산방산, 사계리 해안도로, 송악산이 가까운 거리이며, 동쪽으로는 지삿개해안, 외돌개,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등이 있다.

2) 자연환경

(1) 기후·기상

서귀포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연평균기온이 16°C 정도로 제주시보다 0.6°C가 높으며 서울에 비하면 4°C정도가 높다. 강수일은 130일 안팎이며 흐린 날은 300여일에 이르러 쾌청일은 65일 정도이다. 제주도 전체강수량 약 1,500mm에 비해 중문은 약간 높은 편이다. 이 중 2/3가 6, 7, 8, 9월에 편중 집중호우 현상을 보이며, 해마다 태풍도 2~3회 직·간접으로 내습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대상지역에는 6월 7월 8월 3개월이 남동풍이 많다.

(2) 지형·지세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는 지형에 기복(5~30% 경사변화)이 있는 반면에 대포동 일대는 평탄(0~5% 경사)한 지형을 이루며, 색달동 해안은 모래사장이 있으나 대포동일대 해안은 현무암 단애로서 경관이 수려하다. 중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쪽으로 예래천과 동쪽으로 백구천을 좌우경계로 하며 해안선을 따라서 30~40m의 해안 단애와 해수욕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된 비교적 높은 해안단구는 제주 화산도의 남부구조선이라고 하는 산방산에서 예촌망에 이르는 구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고기(古期)의 화산구조선상에 발달해 있다. 하이얏호텔,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은 표고가 25~50m 상에 위치하고, 여미지식물원은 표고가 75~100m 상에 위치하며, 일주도로 윗쪽은 표고가 100m 이상이다.

(3) 수문·경관

해수욕장 서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큰 하천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천제연계곡 주

변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내천으로 모아지고 있다. 중문골프장에서 흘러 내려와 하얏트 호텔 부근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개다리 폭포'가 있다. 한국콘도와 롯데호텔 산책로 입구쪽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해수욕장 전경 및 멀리 하얏트호텔 서쪽 절리와 절벽을 관망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공물과 절벽으로 인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신라호텔 제1전망대 및 제3전망대에서는 탁트인 경관을 볼 수 있으며 제2전망대에서는 해송으로 인해 다소 시야를 가리고 있다. 해수욕장 및 하얏트호텔 서쪽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절리 및 절벽은 훌륭한 자연경관인 동시에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에 대한 물리적 장벽이기도 하다. 천제연계곡 양측에서는 난대림을 이루는 상록수와 상록넝쿨 식물 및 난대림 상록 양치류가 풍부하게 식생하며 來洞에 있는 하천계곡 주변에도 식생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계곡 이외의 지역과 대포동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이고 수림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일주도로 윗쪽으로는 상록활엽수림, 소나무 등의 수림과 굴밭 등이 분포하고 있다.

3) 인문·사회환경

(1) 토지이용

중문골프장 주변은 초지로 구성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서쪽으로는 경작지로 되어 있다. 성천포 서측, 퍼시픽천마부지는 대부분 퍼시픽천마와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해수욕장 상단 기존 산책로로부터 해수욕장까지의 부지는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골프장 서측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만 서귀포시가 소유하고 있고, 관광공사와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다. 폭포가 있는 천제연계곡은 대부분 임야와 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명사 옆에는 현재 과수원이 있으며, 천제사와 광명사 두 절간이 있고 상수도 관리사와 개인 소유의 전망대가 있다.

(2) 교통·동선

중문관광단지의 진입은 제주시를 기점으로 일주도로(국도 12호선) 서쪽에서 75km, 동쪽에서 105km 거리로 각각 60분과 90분 정도 소요되며 서부산업도로를 이용할 때 41km,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관광단지와 천제연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주로 대여자동차, 택시, 전세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버스는 시내 좌석버스와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가 있으며, 시내 좌석버스는 30여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고, 리무진 버스는 10~15여분마다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중문해수욕장으로의 접근로는 퍼시픽랜드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

(3) 역사·문화자원

중문리는 과거 중문면에 속해있던 중문·회수·대포·하원리 등에 4개 자연취락으로 구성되었으며 1981년 서귀포시가 승격할 때에 서귀포시에 포함된다. 이 중에 속하는 중문리는 1981년 7월1일 서귀포시에 합병되어 한 개 동이 될 때까지 중문면의 소재지였으며 행정, 산업의 중심지였다. 초·중·고등학교와 지서, 우체국, 은행지점 등이 있으며 작은 도시 형태를 이루어 인근 마을들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표 2-4〉 역사·문화자원의 내용

구 분	내 용
천제연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소의 동쪽 동굴천정에서는 차갑고 맑은 물이 언제나 떨어져 예로부터 백중날과 처서날에 이 물을 맞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하여 물맛이 날도 있음 · 천제연의 이름은 오랜 옛날에 7선녀가 물이 맑고 조용한 이곳에 한밤중에 내려와 목욕과 빨래를 하는 곳이라하여 천제연이라 명명함
중 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시대 목사가 순행할 때 국마를 점검하면서 쉬었던 여관 · 위치는 지금의 천제연 주차장 밑 매표소에서 20여m 떨어진 곳 · 중문원은 지금의 중문을 명명하게 된 동기가 됨
비 자 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단 폭포의 중앙의 동쪽 언덕에 장막을 치고 서쪽 벽에는 과녁판을 설치해 놓아 무사들의 활쏘기를 했음 · 조선시대 많이 이용됨
나무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의 제2천제교 아래 상여캐물이 있고 밑으로 좁은 목이 있어 여기에 나무로 만든 다리를 놓아 큰물이 흘러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여 해방전 신작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사용되었음 · 1936년 일본인들에 의해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한 견고한 현대식 다리인 제1천제교가 만들어지면서 옛 다리는 없어짐 · 1994년 제2천제교가 4차선 넓이로 확장됨
논 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제연 양쪽계곡에 3개의 논골이 있음(웃골, 알골, 셋골) · 웃골은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계획을 세워 1907년에 착수하여 2년간 공사 끝에 1908년 완성됨 · 2km나 되는 논골을 베릿내 오름앞까지 만들어 5만여평에 벼 농사를 지음
붉은덕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산분출물인 붉은 송이와 약간의 찰흙이 굳어서 된 절벽 · 높이가 30m 정도되며 윗 부분으로 두 개의 물골이 흘러 논에 물을 보냈음 · 70년대 말 관광단지 개발과 쌀값 하락 등으로 논농사를 그만둠
만 지 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천제사가 자리잡고 있음 · 서쪽을 향해 샘이 솟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는 일이 없고 집안에 제사, 토신제, 조왕제를 지낼 때는 이 물을 길어다 떡을 빚고 쌀을 찌었다 함
원 두 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대까지 먼내모슬과 천제연 부근에는 원두막이 한·두 채 있었음 · 공동으로 밭을 샅내 오이를 심고 나이 많은 분을 택해 오이밭을 지키게 했음 · 원두막의 정취와 동네 어른들이 협동 양식등도 자원화를 고려해야함

자료 : 천제연 관광환경개선 기본계획, 서귀포시·제주발전연구원, 1999년 9월, p.28.

4) 관광환경

(1) 주요 관광시설

① 여미지 식물원

1989년 개장된 여미지는 동양 제일의 식물원으로 3천7백 평 규모의 세계최대 단일온실에 화접원, 수생식물원, 생태원, 열대과수원, 중앙전망대 등이 있으며 온실밖에는 잔디광장과 함께 외국의 유명정원이 배치돼 있다.

여미지에는 2천 여종의 희귀식물이 온실에서 자라고 있으며 온실 밖에도 제주도 자생수목 등 1천 7백 여종의 화초류와 나무가 심어져 있다. 온실 외부에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풍의 '민속정원'과 원형공간에 각종화훼류를 심어 꽃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상원(沈床園), 온실과 정원 사이를 운행하는 60인승 관광유람 동차가 있다. 온실중앙에는 높이38미터의 전망탑(중앙전망대 엘리베이터)이 있어 관광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식물원은 물론 인근에 있는 중문관광단지, 천제연폭포가 한눈에 들어온다.

② 퍼시픽랜드

1986년 개장된 퍼시픽랜드는 돌고래와 바다사자의 묘기가 펼쳐지는 해양수족관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웨밀리 레저센터이다. 돌고래와 바다사자의 쇼가 1일 4회 30분씩 공연된다. 1,400평 규모의 돌고래 쇼 장에는 2,000명 동시수용 가능한 대형 공연홀장 이외에 아름다운 열대어를 감상할 수 있는 미니수족관, 휴게식당 등이 들어서 있다. 유명하다가 솟구쳐 오르는 돌고래와 음악에 맞춰 박수치는 바다표범의 묘기를 볼 수 있고, 야외수족관에는 바다사자와 펭귄을 볼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스넥 코너, 토산품점이 있다.

③ 중문민속박물관

천제연폭포의 맑은 물이 바다와 만나는 포구에 자리잡은 중문 민속박물관은 '베릿내'라는 어촌마을을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다. 별이 내리는 내 라는 뜻의 이 어촌은 수백년동안 전통의 맥이 이어져온 자연부락으로 20여가구가 살아왔다. 웅기종기 모여 앉은 야트막한 28채의 초가지붕, 동글동글한 정감 넘치는 돌담길 등이 있는 민속박물관에는 어민들의 삶의 채취가 묻은 농 어구와 민구, 생활용품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체면적이 1만평이나 되는 이곳에는 민속박물관 이외에 전통초가 형태를 살린 별장식 전통호텔 씨 빌리지도 있다. 초가동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식당, 양식당, 일식당, 칵테일 바, 가라오케, 커피숍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④ 중문해수욕장

퍼시픽랜드와 인접한 진모살이라 부르는 중문해수욕장은 흑(黑)·백(白)·적(赤)·회(灰)색 빛을 띤 고운 모래언덕, 병풍처럼 둘러쳐진 수직절벽이 푸른 파도와 어울려 빼어난 절경을 이룬다. 모래벌은 넓이가 약73,000평으로 만조 시에는 4~50m앞까지 바닷물이 차 오른다. 동서의 길이는 560m이고 평균 수심은 1.2m이다.

해수욕장 동쪽절벽에는 자연동굴이 형성돼 있고 바다속으로 약 500m정도 모래벌이 뻗어 있어서 CF촬영장소로 자주 이용되며 윈드서핑 등 해상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윈드서핑의 경우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바람조건이 더 좋다.

⑤ 선임교

칠선녀교라고도 하는 선임교(仙臨橋)는천제연의 2단과 3단폭포 중간쯤에 위치해 폭포와 중문관광단지를 이어주는 아치형 철제다리이다.

국내 최초로 우리 고유의 오작교 형태로 꾸며놓은 선임교 양쪽 옆면에는 칠선녀의 전설을 살려 각각 다른 악기를 든 아름답고 웅장하게 조각된 일곱 선녀상이 있다. 한 개의 길이가 20미터나 되는 14개의 선녀상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다리 길이는 128m이고 폭4m로 230톤 무게를 견딜 수 있다. 또한 야간관광에 대비하여 1백 개 난간사이에 34개의 석등이 설치돼 있다.

⑥ 천제루

아치형 다리인 선임교 서쪽 너머에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형태인 누각이 세워져 있는데 칠 선녀의 전설을 따 천제루라 불린다. 피안의 신선도와 선녀도가 그려진 2층 누각에 올라 바라보는 한라산과 천제연폭포, 바다의 절경을 볼 수 있다. 앞에는 화강석으로 정교하게 만든 오복천(五福泉)조각상이 있다.

⑦ 소공원

여미지식물원 입구에서 600m정도 떨어져 있으며, 중문관광단지 입구 바로 동쪽에 있다. 인공폭포와 분수대, 물 허벅상, 파고라, 매점 등의 시설이 갖추고 있으며, 자연의 정취를 맛볼 수 있고, 산책코스로 적합하다.

(2) 주요 숙박시설

① 신라호텔

- 위치 : 중문관광단지의 중심부로서 중문골프장 앞쪽 해변에 면한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다.
- 규모 및 부대시설 : 객실 429실, 6개의 식당과 바, 7개의 연회장, 실내·외수영장, 남·

여 사우나, 체련실, 볼링장, 포켓볼장, 라켓볼코트, 테니스코트, 여행사, 포토숍, 기념품점, 난원, 면세점, 카지노를 갖추고 있다.

- 명소 '쉬리'의 언덕 : '쉬리'의 마지막 장면의 촬영장소가 호텔 정원에 있다. 두 개의 벤치와 해송 세 그루가 고작이지만 세계정상들이 산책했던 코스이고,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기자회견을 했던 뜻 있는 장소이다.

② 롯데호텔

- 위치 : 중문관광단지의 중앙, 주변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중문이 해변을 따라 형성된 10~15m높이 해상절리군 위에 있다.
- 규모 및 부대시설 : 객실 500실 3개의 식당, 화려한 분위기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수공원, 풍차전망대, 화산 및 워터스크린쇼, 헬스센터 및 사우나, 테니스코트, 실내 및 노천수영장, 면세점, 어린이 놀이방,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이 있다.
- 워터스크린 영화상영 : 작은 물방울로 스크린을 만들고 그 위에 황룡과 호랑이의 전설을 소재로 한 영상물을 투사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 음악분수쇼 : 경쾌한 음악의 선율에 따라 물줄기가 춤을 추는 음악 분수쇼가 화산이 폭발하고 붉은 용암이 분출하는 장면을 불꽃과 조명등으로 재현한 화산폭발쇼와 함께 공연된다.

③ 하얏트호텔

- 위치 : 중문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이 바다다 보이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리조트 및 카지노호텔이다.
- 규모 및 부대시설 : 객실 224개, 식당 3개, 테니스코트, 헬스클럽, 사우나 및 마사지, white & black beach, 실내외 풀장, 조깅코스, 아열대 정원, 나이트클럽, 노래방, 쇼핑아케이드,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카지노, 캠프 하얏트 및 게임이 있다.
- 한국관 : 하얏트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전통의 건축미와 안마당에서 독특하고 생동감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 국제적인 감각에 맞게 어느 요리도 가능하며 전통무용, 음악, 석공예, 서예, 점술가, 불꽃놀이, 씨름 등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④ 기타 숙박시설

- 중문단지내에는 앞에서 제시한 3개의 특1등급 호텔이외에도 그린빌라호텔, 한국콘도, 중문 씨빌리지 등이 있다.
- 그린빌라호텔 : 객실 90실이며, 한·일·양식 라운지, 가라오케, 수영장, 토산품점, 노래방, 이·미용실을 갖춘 지중해풍의 리조트호텔이다.

- 한국콘도 : 객실 216실이며, 실외수영장, 사우나, 미장원, 오락실, 노래방, 연회장, 식당, 로비라운지를 갖추고 있다.
- 중문 씨빌리지 : 객실 30실이며, 한·일·양식당, 단란주점, 커피, 빠, 매점, 민속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초가지붕의 독립가옥을 객실로 꾸며져 있는 전통마을 분위기의 아담한 호텔이다.

(3) 주요 축제

〈표 2-5〉 주요 축제의 내용

구분	Event명	개최시기	기간	장 소	주관	내용
봄 Event	제7회 칠 선녀축제	5월초	5일간	천제연폭포 일원	중문마을 청년회	· 칠선녀전설 재현 · 칠선녀무 · 현폭사후 등
여름 Event	제주철인 3종대회	6.7~6.11	5일간	중문관광단지 및 서귀포시일원	미정	· 수영: 3.8km · 싸이클: 180km · 마라톤: 42km
	피서철 해수욕장 이벤트	7.1~8.31	2개월	중문 해수욕장	서귀포시	· 썸머페스티벌 일시: 7.28(토) 내용: 연예인초청공연 (MBC 주관) · 야간영화무료상영: 매주 수, 토요일 · 한여름밤관악연주: 개장중 3회
가을 Event	제1회 중문모래밭 골프대회	매년 11월15일	1일간	중문 해수욕장	서귀포시	· 6홀 골프대회 · 장타드라이브
겨울 Event	제2회 겨울바다 평권수영대회	1월 7일	1일간	중문 해수욕장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 해수욕장 수영대회 -구분: 초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거리: 1km(500m왕복)

3. 관광객 방문현황

1) 중문관광단지내의 연도별 관광객 변동 유형

Butler(1980)는 관광공간의 발전적 접근에 관하여 6단계로 구성되는 관광지 라이프사이클모형(tourist area life cycle model)을 제안했는데 첫째단계는 탐색단계로 소수의 관광객

에 의한 불규칙한 방문형태를 가지며, 둘째단계는 주민참여단계로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일부주민이 관광자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며, 셋째단계는 개발단계로 관광지 각종 관광시설이 개발되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며, 넷째단계는 위락지구가 형성되고, 관광사업의 체인점이 등장하며, 다섯째 단계는 정체단계로 관광자의 수가 최고조에 이르며, 여섯째 단계는 회복 혹은 쇠퇴단계인데 회복단계에서는 시설재투자로 새로운 이미지가 창출되어 다시 발전을 하게 되지만 쇠퇴단계에서는 경쟁대상관광지에 밀려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쇠퇴한다. (Butler, 1980, pp. 5-12)

1990년에서 1999년까지 10년간 중문관광단지 관광객의 증가추세를 분석해보면 1990년에서 1996년까지는 년 평균 7.2%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6년에서 1999년까지는 년 평균 4.7%씩 감소추세를 보인다. Butler의 이론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는 쇠퇴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6〉 중문관광단지의 연도별 방문현황

연도	구분	중문관광단지 방문자					
		계	내국인	외국인	일본	중국	기타
'90		2,044,041	1,933,571	110,470	일본	-	40,763
'91		2,403,698	2,253,949	149,749	69,707	-	58,402
'92		2,642,306	2,501,551	140,755	91,347	-	53,487
'93		2,615,353	2,482,279	133,074	87,268	-	27,015
'94		2,724,380	2,580,873	143,507	106,059	353	37,617
'95		2,848,612	2,688,366	160,246	105,537	2,123	47,577
'96		2,925,685	2,794,778	130,907	110,546	1,767	39,346
'97		2,539,992	2,418,828	121,164	89,794	2,236	30,811
'98		2,164,505	2,026,588	137,917	88,117	4,537	32,713
'99		2,514,237	2,361,515	152,722	100,667	11,886	29,875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중문관광단지개발현황, 2000년 11월

2) 중문관광단지내의 월별 관광객 변동유형

월별 관광객이 년 중 어떠한 변동추세를 나타내는 가에 따라 성수기(peak-season)와 비수기(off-season)을 알 수 있는데, 1월, 4월, 5월, 8월이 성수기이고, 2월, 6월, 9월, 12월이 비수기로 나타났다.

〈표 2-7〉 중문관광단지내의 월별 방문현황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97, '98, '99 평균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1월	257.882	5.163	263.045	189.662	4.172	193.834	194.536	7.349	201.885	219.588
2월	132.323	7.118	139.441	128.202	4.689	132.891	120.577	7.010	127.587	133.306
3월	216.775	8.329	225.104	166.508	8.312	174.820	176.979	8.887	185.866	195.263
4월	287.072	10.393	297.465	239.629	10.573	250.202	234.511	11.871	246.382	264.683
5월	328.190	16.259	344.449	212.929	15.798	228.727	235.235	17.808	253.043	275.406
6월	202.219	15.077	217.296	132.027	14.604	146.631	156.442	16.266	172.708	178.878
7월	145.557	11.968	157.525	156.622	16.208	172.830	201.480	15.802	217.282	182.546
8월	254.522	10.208	264.730	238.647	18.550	257.197	304.649	14.847	319.496	280.474
9월	129.115	9.943	139.058	77.816	15.217	93.033	133.784	14.344	148.128	126.739
10월	174.912	11.375	186.287	142.931	12.768	155.699	204.570	18.205	222.775	188.254
11월	155.306	10.288	165.594	177.886	10.367	188.253	205.560	13.922	219.482	191.110
12월	134.955	5.043	139.998	163.729	6.659	170.388	193.192	6.411	199.603	169.996
계	2,418.828	121.164	2,539.992	2,026.588	137.917	2,164.505	2,361.515	152.722	2,514.237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중문관광단지개발현황, 2000년 11월

3) 중문관광단지내 숙박객 이용현황

〈표 2-8〉 중문관광단지내의 숙박객 이용현황

구분	이용자수				
	객실			부대시설	
	외국인	내국인	계	외국인 내국인	계
	숙박객수	숙박객수	숙박객수		
연숙박객수	연숙박객수	연숙박객수			
특1급	제주신라	28,971	88,588	258,640	530,771
		58,933	179,394	272,131	
특2급	하얏트리젠시	11,187	46,190	35,987	282,262
		23,492	98,301	246,275	
1급	호텔 하나	662	27,184	536	25,457
		1,278	47,777	35,848	
전통호텔	관광어촌 씨빌리지	452	27,759	342	39,911
		715	39,689	25,115	
콘도	한국콘도	948	14,759	827	44,891
		1,202	19,436	39,084	
		0	86,071	0	
		0	186,012	44,891	

자료: 서귀포시·제주발전연구원, 중문해수욕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2000.7 p.33.

4. 현황분석 종합을 위한 SWOT분석과 개발방향

구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입지 여건	- 관광단지내 위치 - 주변 야간관광 상품의 부재	- 산책로 역할 미흡 - 지역주민을 위한 기능부족	- 동부2단계 사업추진 개발필요성 - 롯데호텔 등 개관으로 잠재이용객 증가	- 골프장이 액티비티의 연결을 단절시키고 있음
자연 환경	- 빼어난 자연경관, 주상절리, 사구 등 - 주상절리의 가치가 뛰어남	- 폐청일이 작음 - 6월과 8월에 남동풍의 영향으로 해양레포츠에 제약	- 대규모 시설이 없어도 이야기거리의 관광 패턴의 증가	- 개발로 인한 자연 자원의 가치 손상 우려
인문 사회 환경	- 역사와 문화자원이 주변에 산재해 있고 자원화 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	- 경관이 수려하여 개발을 제약함 - 대상지역의 대부분이 관광공사와 퍼시픽 천마의 소유임	- 역사문화유적을 자원화 한다면 경쟁력있는 관광지의 유도가 가능 -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자원발굴의 의미가 있음	- 관광공사가 민영화 되면 토지사용에 대한 협조의 어려움
관광 환경	- 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진행 - 최상급 호텔의 밀집 으로 고급 관광객 유치에 적절	- 퍼시픽랜드의 중단한 시설물들이 경관을 해치고 있음 - 성천포구의 이용과 개발에 제약	- 롯데호텔의 화산폭발 쇼로 인한 야간관광의 활성화 기대	- 커미션 의존적인 관광체계하에서는 관광상품개발의 의미가 퇴색

Ⅲ. 관광객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모집단(population) : 중문관광단지를 방문하는 만 20세 이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기간 : 2001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에 걸쳐 조사를 하였다.
- 표본의 크기 및 설문지 회수 : 배포된 설문지 100부중 98부를 회수하고,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6부를 제외한 92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2) 인구통계적 특성

- 성별은 남성 48명(52.2%), 여성 44명(47.8%)로 나타났다.

- 연령은 20대 36명(39.1%), 30대 28명(30.4%), 40대이상 28명(30.4%)로 나타났다.
- 학력수준은 고졸이하 16명(17.3%), 대학생 24명(26.1%), 대졸 40명(43.5%), 대학원이상 12명(13.0)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하 32명(34.8%), 101만원-200만원 32명(34.8%), 201만원이상 28명(30.4%)로 나타났다.
- 직업은 경영관리직 8명(8.7%), 판매서비스직 16명(17.4%), 사무기술직 12명(13.0%), 생산직 8명(8.7%), 자영업 8명(8.7%), 주부 8명(8.7%), 학생 28명(30.4%), 무직 4명(4.3%)로 나타났다.

〈표 3-1〉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성별	남	48	52.2	52.2
	여	44	47.8	100.0
연령	20대	36	39.1	39.1
	30대	28	30.4	69.6
	40대이상	28	30.4	100.0
학력	고졸이하	16	17.3	17.3
	대학생	24	26.1	43.5
	대졸	40	43.5	87.0
	대학원이상	12	13.0	100.0
소득	100만원이하	32	34.8	34.8
	101 - 200만원	32	34.8	69.6
	201만원이상	28	30.4	100.0
직업	경영관리직	8	8.7	8.7
	판매서비스직	16	17.4	26.1
	사무기술직	12	13.0	39.1
	생산직	8	8.7	47.8
	자영업	8	8.7	56.5
	주부	8	8.7	65.2
	학생	28	30.4	95.7
	무직	4	4.3	100.0

3) 주요분석결과

- 중문관광단지예 야간관광상품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68명(73.9%), 필요하지 않다 4명(4.3%), 모르겠다 12명(13.0%)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 야간관광상품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야간관광상품의 필요성	필요하다	68	73.9
	필요하지않다	4	4.3
	모르겠다	12	13.0

- 중문관광단지 야간 이벤트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기야간공연 28명(30.4%), 계절별 음식페스티벌 28명(30.4%), 1주단위 민속행사 4명(4.3%), 각종 경연대회 20명(21.7%), 기타12명(13.0%)로 정기야간공연, 계절별 음식페스티벌 및 각종 경연대회가 다른 야간이벤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3〉 야간이벤트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야간이벤트의 필요성	정기야간공연	28	30.4
	계절별음식페스티벌	28	30.4
	1주단위민속행사	4	4.3
	각종경영대회	20	21.7
	기타	12	13.0

- 중문관광단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광자원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음식문화의 다양화 4명(4.3%), 주제공원 및 공연장 20명(21.7%), 토산품점 및 쇼핑공간 12명(13.0%), 조랑말 공연 및 투견 4명(4.3%), 화산폭발 등 정기무대행사 28명(30.4%),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 24명(26.1%)로 화산폭발 등 정기무대행사, 주제공원 및 공연장, 먹거리 장터가 다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 중문관광단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광자원

	구분	빈도(명)	구성비(%)
중문관광단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광자원	음식문화의 다양화	4	4.3
	주제공원 및 공연장	20	21.7
	토산품점 및 쇼핑공간	12	13.0
	조랑말공연 및 투견	4	4.3
	화산폭발 등 정기무대행사	28	30.4
	야간 먹거리 장터	24	26.1

- 야간에 즐길거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부족하다 40명(43.5%), 부족하다 32명(34.8%), 보통이다 20명(21.7%)로 78.3%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3-5〉 야간즐길거리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명)	구성비(%)
야간 즐길거리	매우부족하다	40	43.5
	부족하다	32	34.8
	보통이다	20	21.7

- 야간에 볼거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부족하다 32명(34.8%), 부족하다 24명(26.1%), 보통이다 28명(30.4%), 부족하지 않다 8명(8.7%)로 60.9%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3-6〉 야간볼거리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명)	구성비(%)
야간볼거리	매우부족하다	32	34.8
	부족하다	24	26.1
	보통이다	28	30.4
	부족하지 않다	8	8.7

- 야간에 먹거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부족하다 24명(26.1%), 부족하다 56명(60.9%), 보통이다 8명(8.7%), 부족하지않다 4명(4.3%)로 87.0%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3-7〉 야간먹거리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명)	구성비(%)
야간먹거리	매우부족하다	24	26.1
	부족하다	56	60.9
	보통이다	8	8.7
	부족하지않다	4	4.3

- 중문관광단지에 야간상품개발시 재방문할 의향에 대한 의견은 없다 4명(4.3%), 모르겠다 20명(21.7%), 있다 44명(47.8%), 매우있다 24명(26.1%)로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의

견이 73.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야간상품개발시 재방문의향

구분	빈도(명)	구성비(%)	
야간상품개발시 재방문의향	없다	4	4.3
	모르겠다	20	21.7
	있다	44	47.8
	매우있다	24	26.1

4)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 야간관광상품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68명(73.9%)로 나타나 야간관광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정기야간공연, 계절별 음식페스티벌 및 각종 경연대회(82.5%)가 다른 야간이벤트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이를 이용한 행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야간에 즐길거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78.3%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볼거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60.9%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먹거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87.0%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문관광단지에 야간상품개발시 재방문할 의향에 대한 의견은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73.9%로 높게 나타나 야간상품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N. 중문관광단지 야간관광활성화 전략

1. 기본방향

① 즐겁고 오래 기억되는 야간관광

중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상품들은 야간에도 가장 즐거우면서 오래 기억되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을 지니도록 유도한다. 즐기기는 편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장소가 되도록 한다.

② 계절과 날씨를 초월하는 야간관광

관광지는 계절과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문이 추구하는 관광은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적게 받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비오는 날이면 오히려 야간관광이 더 잘 이루어 지는 방안을 계획한다. 에버랜드처럼 비오는 날에는 색깔 있는 우산을 찾는 이들에게 제

공한다거나 수중이벤트를 치루게 하며 추운 겨울에는 바닷물속에 누가 오래 견디는지를 시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수한 팀에게는 할인 숙박권을 주는 방안도 구상한다.

③ 독특한 매력이 흘러 넘치는 야간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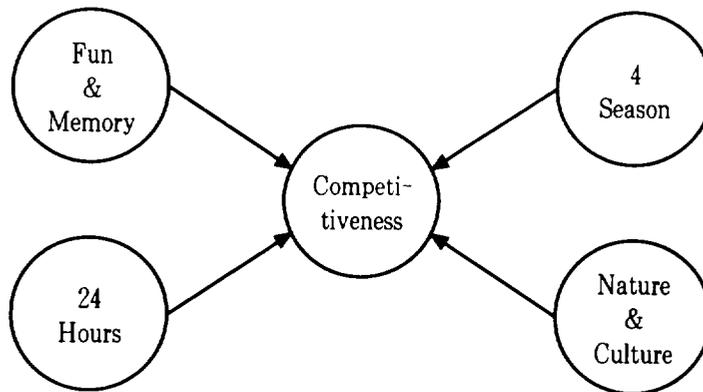
관광지의 좋은 추억은 야간에 이루어지고 야경은 독특한 매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매력이 넘치는 야간관광이 활성화되도록 구상한다.

④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야간관광

중문에는 역사적 문화자원이 많이 있다. 그리고 맑은공기, 바람, 깨끗한 물, 아름다운 해안 등 풍부한 자연자원들도 산재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문화와 접목시켜 매력을 발휘하는 야간문화 관광지로 계획한다.

⑤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야간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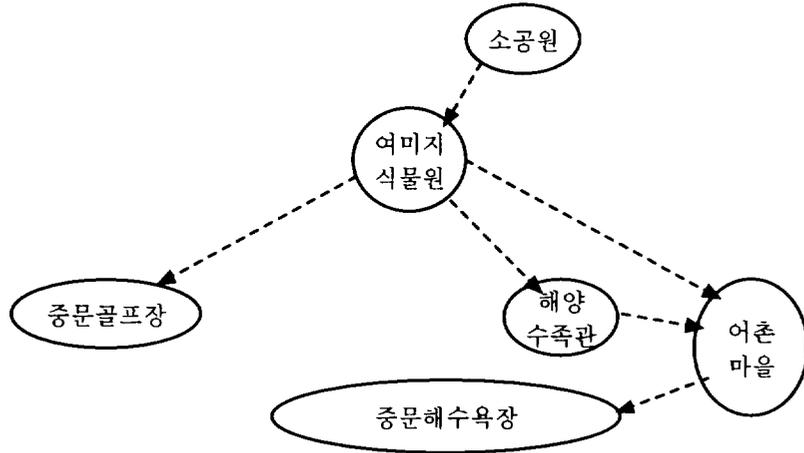
주변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중문 및 서귀포시의 관광환경은 더욱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관광자원, 상품, 가격, 서비스, 홍보 등이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구상한다. 또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국제관광자유도시를 표방하지만 외국관광객은 일년에 25만명 정도이다.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쇼핑과 관광에 불편함이 없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야간관광지를 목표로 구상한다.



2. 야간상품개발 구상도

현재 단순체재형인 보는 관광에서 탈피한 동적이면서 야간에도 관광객을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을 유도하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독특한 역사·문화자원발굴과 이에 따른 야간상품을 구상한다. 기존의 중문관광단지의 시설현황을 살펴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상품을 모색한다.

□ 기존 관광시설 현황도



〈표 4-1〉 기존 관광시설별 이용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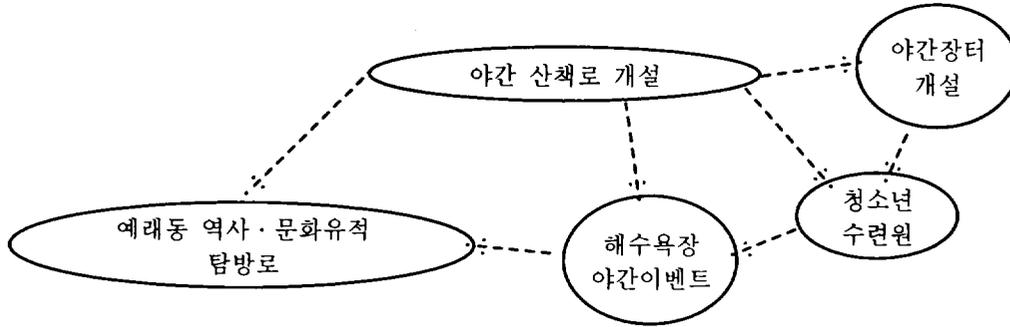
활동시설	강도	이용시간		이용객								
		주간	야간	이용계층				이용그룹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	가족	연인	친구	단체	
골프장	●	■				○					○	○
해양수족관	▲	■		○	○				○	○	○	○
여미지식물원	●	■		○	○	○	○	○	○	○	○	○
천제연폭포	▲	■		○	○	○			○	○	○	○
소공원	○	■				○	○	○	○	○	○	○
민속박물관	▲	■				○	○	○				○
중문해수욕장	▲	■		○	○	○	○	○	○	○	○	○
이벤트행사	▲	■		○	○	○			○	○	○	

(강도 : 강 ● 중▲ 약 ○)

기존의 중문관광단지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중문 골프장, 해양 수족관, 여미지 식물원, 소공원, 민속 박물관이 있으며 자연자원으로서 중문해수욕장과 천제연 폭포, 그리고 계절 별로 이어지는 이벤트 행사 등이 있다. 고급 숙박시설, 골프장 등은 고소득층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이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여미지식물원, 퍼시픽

랜드, 민속박물관 등은 전형적인 보는 시설로서 야간이용이 불가능하며, 현대레저의 주종을 이루는 가족단위관광, 체험위주의 즐기는 관광과 상반되기 때문에 경쟁관광단지와의 경쟁력이 상실하고 있다. 시간대별·이용자별 현황분석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2> 새로운 야간 관광상품 도입시설



활동시설	강도	이용시간		이용객								
		주간	야간	이용계층				이용그룹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	가족	연인	친구	단체	
갈옷fashion show	●		■			○	○				○	○
야간민속공연	▲		■	○	○	○	○	○	○	○	○	○
청소년수련원	○	■	■	○	○						○	○
야간 산책로 개설	▲	■	■	○	○	○	○	○	○	○	○	○
해수욕장내 야간이벤트	▲		■	○	○	○	○	○	○	○	○	○
역사·문화 유적탐방	▲	■	■	○	○	○			○			○
야간장터	●		■			○	○	○	○	○	○	○
호텔별 야간이벤트	●		■	○	○	○	○	○	○	○	○	○

관광시설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과 발맞춘 야간관광상품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야간관광상품 도입시설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3. 도입시설에 따른 주요 야간관광상품의 내용

1) 정제화된 갈옷 fashion show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라는 인식을 기본전제로 한 갈옷패션쇼를 도입하여 야간행사시 제주의 전통의상을 전시, 공연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입고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현한다. 직접 입고 연출은 물론 구입도 가능하도록 하여 찾는 이들이 반드시 구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든다. 이 방안은 해수욕장내 야간 이벤트시 시행하는 방안과 민속공연시 대표적인 정제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

2) 야간민속공연

제주인의 삶을 직접표출하고 그 속에서 관람객들이 동참하여 제주의 고유 풍습과 언어를 접하는 장소로 적극 활용한다. 제주의 전설을 주제로 하며 섬문화축제시 이루어졌던 섬축제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여러 나라 섬들의 공연을 재현한다.

3)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및 개별 관광객을 위한 캠핑장을 조성하며 퍼시픽천마의 마린파크시설 전방 주차장 남측 계곡일대에 조성지로 계획하며 기존에 논으로 사용하던 바닥부분은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호수를 만들고, 야영장에는 소규모 야외무대와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춘다. 도내 학생들의 MT장소로 적극 활용한다.

4) 야간 산책로 개설

외국정상들이 정상회담후 산책하였던 기존 산책로는 산책객이 많으나 저녁에는 조명시설의 미흡으로 인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조명시설을 갖추어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는 야간환경을 개선하여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상회담을 이용한 테마공원을 건립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야간명소지로 육성한다.

5) 해수욕장내 야간 이벤트 개설

정기적인 야간 조명 레이저를 해수욕장내에 설치하여 야간에 증문을 찾는 이들의 최종목적지로 이용하며 각종이벤트를 개최한다. 예컨대 씨름대회 혹은 신혼부부를 위한 사랑

의 이벤트(기본전략에서 제시한 것처럼 바닷물속에 오랫동안 참는사람이 더욱 자기의 연인을 사랑한다는 테마를 설정) 등을 연출한다. 비오는 날에는 호텔내에서 정기적으로 사랑의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예전에 방송되었던 신혼부부들을 위한 밤을 테마로 설정하여 추억에 남는 신혼여행이 되도록 연출한다.

6) 역사·문화유적 탐방

상예동 바위그늘 집자리와 색달동 바위그늘 집자리, 그리고 성천포 바위그늘 집자리를 정비하여 선사시대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여 자원화 한다. 또한 야간에도 조명시설을 갖춰 그들이 생활상을 직접 연출한다. 상예동 바위그늘 집자리로 연결되는 죽은모살 진입로를 따라 하수종말 처리 부근까지는 해안암석을 그대로 이용한 문화 유적 탐방로를 개설하며 하얏트쪽으로 흐르는 물을 따라 떨어지는 개다리 폭포를 적극 활용해 야간 폭포쇼를 연출한다.

7) 야간장터 개설

주간에 중문시내에서 오일장을 치르되 야간에는 관광단지 안으로 이설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서로 공감하는 장으로 연출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친숙해 질 수 있는 방안 및 특히 먹거리 부재에 따른 해소방안을 해결하며 또한 제주의 재래식 장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또한 제주의 전통적인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놓음으로써 전세계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제주의 맛을 보여준다.

또한 갈옷만들기와 빙떡만들기 행사를 치르되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들며 정기적으로 향토요리 페스티벌을 여는 방안을 강구한다.

8) 호텔별 야간 이벤트

중문관광단지의 특급호텔인 신라호텔의 레이저쇼, 롯데호텔의 화산폭발쇼, 하얏트 호텔의 야간 분수쇼 등을 이용한 야간 이벤트를 개최하며 시간대별로 이벤트가 이루어 지도록 연출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9) 기존시설을 이용한 야간이벤트

야간에 여미지 식물원에서 정원을 이용한 이벤트를 열고 이번에 새롭게 중문단지에 들어선 곰박물관에서는 곰인형을 이용한 야간 이벤트를 구상한다. 직접 곰인형의 마스크를

쓰고 관광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며 중문단지를 관광객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출한다.

10) 그외 야간시설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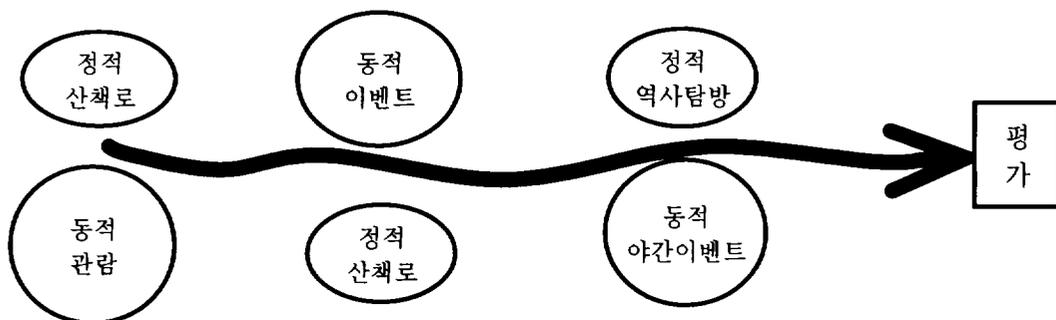
중문해수욕장 진입로에 터널분수를 설치하여 야간에 해수욕장 진입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무대 잔디쪽에는 바닥조명을 설치한다.

〈표 4-3〉 도입시설에 따른 표적시장 선정

도입시설	표적시장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개별	단체	신혼	가족
정제화된 갈옷 fashion show		○	○	○	○	○	○	○
야간 민속공연	○	○	○	○	○	○	○	○
청소년 수련원	○	○				○		
야간 산책로		○	○		○		○	○
해수욕장내 야간이벤트	○	○	○	○	○	○	○	○
역사·문화유적 탐방	○	○	○			○		○
야간장터		○	○	○	○		○	○
호텔별 야간이벤트		○	○		○		○	
여미지식물원 정원이벤트	○	○	○		○	○	○	○
곰박물관 야간퍼레이드	○	○			○	○	○	○

도입활동의 설정에 있어 정적시설과 동적시설의 조화가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적절한 도입시설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시설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 도입활동과 시설프로그램

활동구분		도입·유발 활동	비고
정적 활동		· 산책, 휴식 · 경관감상	· 야간 산책로 · 야 경
동적 활동	위락·관람 활동	· 이벤트 행사 및 쇼 관람 · 지역민과 관광객의 조우 · 선사시대 삶 재현	· 갈옷 fashion show · 야간장터 · 유적지 탐방
	레포츠 활동	· 청소년 극기훈련 · 농구, 배구, 족구 등	· 청소년 수련원 · 운동시설지구

〈표 4-5〉 주제별 시설 검토

주제	기능	도입 활동 및 시설
주·야간	학습 및 관람 관람 및 홍보 극기	· 역사, 문화 유적 탐방 · 갈옷 fashion show · 청소년 수련원
야간	이벤트 데이트 및 탐방 관람 만남	· 야간 민속공연(해수욕장내 이벤트 포함) · 야간 산책로 · 호텔별 야간 이벤트 · 야간장터

V. 결론

관광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제주에서 중문관광단지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광객들에게 설문을 통해 야간시설의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적이였다. 설문의 구성이라든가 유효표본수에 대한 신뢰가 다소 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중문관광단지를 찾는 사람들은 뭔가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품들을 요구했으며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품들이 부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문관광단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간위주의 상품에서 벗어나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좀더 관광객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문단지의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즐겁고 오래 기억되는 야간관광, 계절과 날씨를 초월한 4계절 전천후 야간관광, 밤에도 독특한 매력이 흘러 넘치는 24시간 살아 숨쉬는 관광,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야간문화관광,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광이 살아날 때 중문은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야간관광지로 거듭 태어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철민,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6
- 박용후,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 1992
- 서귀포시·제주발전연구원, 중문해수욕장 환경개선기본계획, 2000. 7
- 서귀포시·제주발전연구원, 천제연 관람환경개선 기본계획, 1999. 9.
- 이진희, 장소마케팅전략을 통한 중문관광단지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001. 10
- 이진희, 제주관광개발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산경논집 14, 2000, p. 203-206.
- 이진희외 1명, 중문관광단지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학회 제4집 제민일보, 2001.5. 1.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진흥 기본계획, 2000.10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중문관광단지개발현황, 2000. 11.
- 한국관광공사, 프랑스 해안 관광지 개발, 1989
- 한라일보, 2001.3.9
- R. W. Butler,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aluation :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Vol. 24, No. 1. 1980.